

# 월/요/광/장

강은국



최근 들어 '문화산업'이란 문구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제는 문화도 단순한 학문으로서의 문화가 아니라 부(富)를 창조하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해외에 진출한 수많은 기업인들이 현지의 문화를 옹기 파먹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원인으로 바로 여기에 있다.

어느 민족이나 국가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중국과 같이 땅덩어리가 크고 수많은 민족이 섞여 사는 다민족 국가일수록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중국은 960만km의 땅덩어리에 56개 민족이 더불어 사는 대국이다. 땅이 넓은 만큼 지역에 따라 문화가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중국의 유명한 문화가이며 평론가인 임어당(林語堂) 선생은 일찍이 중국을 북방, 양쯔강 이남, 광둥, 호북, 후난 등 다섯 개 구역으로 나누어 그 문화적 특징을 고찰한 바 있다. 우리도 임어당 선생의 분류법에 따라 양쯔강을 경계선으로 남쪽과 북쪽의 문화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임어당 선생은 '남방과 북방'이란 잡문에서 "북방 사람들은 중국에서 전쟁과 모험을 묘사하기 좋아하는 소설가들을 위해 많은 소재를 제공한 사람들이고, 남방 사람들은 노련한 상인과 뛰어난 문화학자들이

## 중국 남방 사람 VS 북방 사람

지만 전쟁터에서는 주먹이 머리 위에 떨어지기도 전에 달려달라고 빌 준비부터 하고 있는 겁쟁이들이다"라고 유머러스하게 묘사했다.

그렇다. 중국 역사를 살펴보면 지난날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 제왕들 중에 양쯔강 이남의 사람은 단 한 사람에 불과하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장계석이 절강녕과 출신이지만 기타의 장군들은 모두 허북, 산둥, 안휘, 허난 등지에서 나왔다. 그래서 "쌀밥을 먹는 남방 사람은 천자의 자리에 오를 수 없고 면을 먹는 북방 사람만이 천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말까지 생겨났다.

반면 해외 화인(華人·중국인) 거상(巨商) 중에는 상해, 운주(溫州), 조산(潮汕) 사람이 절대적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의 7천만 중국 갑부의 절대 다수가 남방 사람들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북방 사람들은 정치와 군사에, 남방 사람들은 상업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북경에서 택시를 타본 사람은 누구든 한번쯤은 경험하게 되는데 택시기사들이 정처에 대해 상당히 밝다는 점이다. 어느 성의 부성장이 부정부패로 목이 잘리게

되었다는, 어느 부장(한국의 장관)이 비자금을 얼마나 횡령했다는, 중앙 정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자기 집안일 처럼 환히 꿰뚫고 있는 것이다.

상해에선 이와는 정반대의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상해의 택시기사들은 주식이 얼마나 오를 것이냐라니, 부동산 시세가 어떻다는 등 경제학 박사보다 경제에 대해 더 잘 아는 것 같다.

그만큼 북방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남방 사람들은 돈벌이에 관심이 많은 것이다. 친구들을 만났을 때 하는 인사말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고스란히 반영된다. 남방 사람들은 친구에게 "요즘 얼마나

벌었어?"라고 하지만 북방 사람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라고 묻는다.

그렇다고 해서 북방 사람들이 돈벌이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경제가 토대인 만큼 돈은 남방 사람들에게나 북방 사람들에게나 상당한 흡인력을 갖고 있다. 북방 사람들도 돈벌이를 위해 매일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 방식에는 남과 북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방 사람들은 술자리에서는 사업을 절대 담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북방 사람들은 고급스러운 술집이 아니고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예기를 나누지 않는다는 전통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다. 여져 보면 남방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행위의 결과에, 북방 사람들은 행위의 과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것 같다.

남방 사람이나 북방 사람이나 모두 중국인임은 분명하다. 남방문화나 북방문화도 동일한 중국 문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문화가 이렇듯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 거시적으로 '중국 문화'를 담론하기보다 미시적으로 중국의 '지역 문화'를 담론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한다.

(중국 푸단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 설

## 광주 생활경제 고통지수 전국 두번째라니

광주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경제적 고통의 크기에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LG경제연구원이 산정한 생활경제 고통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는 10.8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생활경제 고통지수가 10 이상이면 고통의 정도가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광주 시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경제 고통의 정도가 높다는 것이다.

문제는 광주의 생활경제 고통지수가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광주의 생활경제 고통지수는 전년(10.4)에 비해 0.4포인트 상승했으며 전국 평균(9.6)에 비해 무려 1.2나 높다. 이는 광주의 생활물가가 타 시·도에 비해 가파르게 오르고 고용 역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광주의 생활경제 고통지수가 높은 것은 일자리가 부족해 생활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물가가 치솟

으면 경제적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생활경제 고통은 지역경제 운용의 틀을 바꾸지 않는 한 극복이 어렵다. 지역정책의 초점을 기업유치를 통한 안정적 일자리 만들기에 모아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과감한 규제완화, 노사관계 정착 등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물가관리도 시급하다. 올 1월 광주 소비자 물가는 전국 평균 3.9%보다 높은 4.1% 올랐다.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물가 지수도 5.4%나 뛰었다. 서민에게 주름살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광주시는 최근 고물가가 해외 요인에서 비롯된 부분이 크지만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해 물가를 잡아야 한다. 특히 채굴물가에 가장 영향이 큰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힘들어지는 계 서민들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지혜와 노력이 요구된다.

## 또 터진 병역비리 '고질병' 근절대책 없나

병역비리가 또 터졌다. 검찰은 현역을 기피하기 위해 일부러 어깨뼈를 어긋나게 하거나 아랫배 등 특정 부위에 힘을 줘 고혈압으로 위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충역이나 면제관정을 받은 측구선수 등 100여명을 형사처벌했다. 병역비리가 우리 사회의 고질병임을 다시 확인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적발된 측구선수에는 K리그 소속 현역을 비롯 K-2(실업), K-3(아마추어) 리그와 대학소속 선수까지 포함됐다. 측구제가 이 정도이니 다른 스포츠 등 사회 전 분야로 수사를 확대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착상하다. 동원된 편법 및 불법행태에 기가 막힐 뿐이다.

병역의무는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이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하지만 심심치 않게 터지는 스포츠계와 연예인, 지도층 자체 등의 병역비리에서 드러나듯 돈이 없고 '빽'이 없는 사람만 군대에 간다는 그릇된 인식이 팽배해 있다. 오죽하면 군 면제자나

단축 근무자에 대해 '신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당국은 병역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병무행정의 혁신을 다짐하며 현역 입대 원칙을 강조했지만 약속은 매년 '뒷북 행정'이나 헛구호에 그쳐왔다. 이번에도 특정 부위에 힘을 줘 혈압을 조작하거나 브로커 조직이 대신 혈압을 측정하는 탈법이 통했다니 할 말이 없다.

병역 관정과정에서 이처럼 허술해진 비리는 근절될 수 없다. 혈압 하나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 것은 병무 당국의 직무유기에 가깝다. 빈틈 없는 감시 및 관리 감독체계가 구축됐다면 이런 수법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병역비리가 터질 때마다 서민들은 엄청난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병무청은 병무행정의 전반을 재검토해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비리 연루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법조 칼럼

김충한



필자는 작년에 미국 버클리대학교에서 연수를 받으며 대학 근처에 있는 월넛트리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생활할 기회를 가졌다.

미국인들이 다 그런지, 워낙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바쁜 한국생활에 익숙해 있던 필자로서는 그곳 사람들의 여유 있는 생활태도가 한편으로는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부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지리에 어두워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한 때도 있었고, 생활관습을 알지 못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별달리 싫은 내색을 하지 않던 그들의 모습은 지금도 좋은 기억으로

필자는 얼마 전에 아주 선량한 얼굴을 가진 사람을 조사하게 되었다. 그는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1차 사고를 내고 뺨소니 쳤다.

이어 다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2차 사고를 낸 뒤 계속 도주했다. 결국은 목격자의 추적으로 붙잡힌 전형적인 뺨소니 사범이었다.

술에 만취한 탓인지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 하는 그가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너무나 선해 보이는 얼굴로 연신 잘못했다며 선처를 바라는 그를 바라보자니 연민의 정을 감출 수 없었다. 운전대를 잡기 전에 한번만 더 생각

## 질서를 지키는 여유

남아 있다.

미국에서의 추억을 뒤로 하고 예약으로 이름이 높은 광주에서의 생활을 시작한 필자의 눈에 비친 광주의 모습은, 기대했던 것만큼 여유로워 보이지 않았다.

전국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로이지만, 특히 교통문화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정지신호를 받고 정지해 있는 차량에 대해 빨리 가라고 경적을 울려대는 운전자, 횡단보도를 바로 옆에 두고 무단 횡단을 하는 보행자,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슬금슬금 진행하는 차량, 누가 끼어들까봐 앞차에 닿을 듯 뒤쫓아 가는 차량, 도로에 이중으로 주차되어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난감하게 만드는 차량 등...

이를 보면서 필자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양보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해 보았더라면 것처럼 자신의 행동을 후회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지난 1일 '기초질서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발대식이 열렸다.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이 민간 주도의 상시 체제로 운영된다는 소식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싶다.

질서 있고 청결하며 친절할 광주시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시민의 힘으로 가장 모범적인 기초질서 시범 도시로 만들자'는 결의문도 채택됐다. 질서는 곧 그 도시와 국가 얼굴이다.

이 운동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새해에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설레는 새해의 첫 날, 자정에 첫 출근하던 날의 등근거림, 다시 새롭게 하나를 시작할 때의 그 호뭇함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미래를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광주지검 부부장검사>

## 올 설엔 세뱃돈 대신 도서상품권을

고유 명절인 설이 다가온다. 자녀들은 응당 용돈을 받는 것으로 여기고 어떤 아이들은 미리 목표액까지 정해 놓는다고 한다.

요즘은 초등학교 세뱃돈도 대부분 1만원권의 지폐다. 물론 할아버지나 할머니, 친지들에게 받은 돈을 알차게 쓰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게임용 상품을 사거나 전자기기를 사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번 설에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세뱃돈 대신 독서를 열심히 하라는 덕담과

함께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을 건네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다.

아이들은 다가오는 새 학기에 필요한 책을 사거나 독서용 서적을 구입하거나 방학 중에 공영 영화를 관람하는 등 문화활동을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교육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

어른들은 지폐를 주는 것보다는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이 훨씬 품위 있어 보일 것이다.

▲우정렬·광주시 서구 회장동

### 기고

서삼석



새 정부 출범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들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무안군민들은 기업 친화적 정부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기업도시 건설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지난 2005년 7월 무안기업도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지역민들은 낙후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황폐해 가는 농촌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무안군은 수도권과 원거리에서 위치한 지정학적 한계로 국내 기업 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중국자본 유치만이 기업도시가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중국내 도

기별 '해외 직접투자 산업지도 목록'을 공표, 국가별로 해외투자 장려업종과 프로젝트별 지정하고 각 부처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 승인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정부가 중국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각종 자원, 첨단 기술, 브랜드 파워의 확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해외시장에 대한 기업의 글로벌화는 간접 수출, 직접 수출, 기술 라이선싱, 직접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직접 투자 건설과 투자액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무안의 한중단지에 관심을 갖고 투자승인한 배경도 대외 경제

## 무안 韓中國제산단, 국가가 키워야

급순위 6위인 민간기업과 중경시가 100% 출자한 국영기업 유치를 위해 지난 2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수차례 중국정부의 현지실사 과정 등을 거쳐 지난해 1월 중국정부로부터 6억달러 투자 승인을 받았고,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경제합작구'로 추가 지정을 받음으로써 중국기업 진출이 용이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

'해외경제합작구'는 중국 상무부가 주도해 해외에 17개소를 지정해 중국기업의 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정책이다. 여기에 진출하는 기업은 국비 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금융지원을 받게 된다.

중국의 해외투자자는 과거 인진페어(引進來)에서 조우추취(走出去)로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우추취 정책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입안한 정책으로 국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내 기업 중에서 첨단 기술력을 갖추고 브랜드 파워를 키워 글로벌화를 꾀하는 기업의 진출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런 배경 아래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중단지에는 이제 국가간 협력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 중국정부는 이미 국가사업으로 확정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기업도시 특별법에서 정한 원론적인 입장만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국제산업단지는 단순한 민간 자본유치가 아닌 51%가 중국자본을 유치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안기업도시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국토 균형발전은 물론 한중 양국간 교류확대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에 새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뒷받침 되기를 바란다. <무안군수>

## 공공장소 사기성 구인광고 단속해야

최근 지하철에서 '주부사원 모집' 광고물을 봤다. 병행의 3배 정도 되는 크기의 광고물이었다. '43~60살 주부사원 모집. 100% 월급제, 4대 보험 가입, 아르바이트도 가능'이라는 내용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요즘 아이들 사교육비 때문에 힘들어 아르바이트라도 해볼 요량으로 그 업체에 전화를 해봤다. 일단 이력서를 가지고 방문해 달라고 해서 갔더니 면담하던 직원이 난데없이 필자의 신용 상태를 물었다. "혹시 신용불량자 아니냐" 등등..

그 말을 듣는 순간 속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단계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신용 상태를 물은 이유는 몇 십만원짜리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였다.

평년되적하거나 나이 드신 분들은 판단력이 흐려져 이런 다단계 업체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 시민들이 취업 사기와 감언이설에 속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 이 같은 구인광고가 나붙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이영애·광주시 북구 문흥동

### 無等鼓

직업 중 법률가처럼 찬사와 비난이 교차하는 것도 드물다. 화려한 법이론을 작품에 자주 인용했던 셰익스피어는 '헨리6세'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법률가들을 때려잡는 일이다"라고 외쳤다. 이론이란 면에서는 자신만만했지만 그는 소송에서 수없이 패소했다.

우리네 사정도 비슷하다. 자신들은 관·검사 시키기 위해 기를 쓰지만 정작 자신은 법원 근처에도 안가려 한다. 그렇지만 직업으로서 법률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기가 높았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가 완성되면 법률이 소멸된다고 말했지만 스탈린시대에도 변호사는 인기 직업이었다.

로마는 무력(힘)과 종교(기독교), 그리고 법률을 통해 세계를 지배했다. 이 명제는 미국에도 적용된다. 미국이 햄버거와 청바지로 세계의 문화코드를 장악했 듯 '정의'라는 이름을 앞세운 미국식 법 감정과 법률 체계가 지구상에 군림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한 법. 미국 사회는 법률 과잉, 소송 과잉이라

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한국인 세탁소 주인을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미국 판사의 경우가 좋은 사례다.

미국에는 변호사를 조롱하는 농담들이 많다. 교통사고 환자들이 쫓아다니는다고 해서 붙여진 '앰블런스 체이서'(Ambulance Chaser)'가 대표적이다. '앰블런스 뒤를 따라붙는다. 그곳에는

부러진 다리가 있다. 그것은 곧바로 돈이다.' 1998년 나온 영화 '시빌액션'(Civil Action)의 오프닝 타이틀이다. 영화의 주인공 변호사 잰 맥락은 "이상적인 피해자는 40대 백인 남자. 가장 나쁜 피해자는 전과기록이 있

는 흑인과 어린이이다"라며 주관을 뽐긴다. 배심원제와 함께 대표적 미국 법률제도인 로스쿨을 놓고 한국사회가 난리다. 로스쿨이 법률서비스 향상이라는 취지를 잃고 앰블런스 체이서 같은 법률 과잉으로 가지 않을까도 걱정이다. /오주승 사회1부장 jsoh@kwangju.co.kr

### 앰블런스 체이서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대표전화 2200-551		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19 <F A X 222-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마케팅국 2200-521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사회1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2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액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